

나눔정신으로 “우리는 하나”

전국 불청대회 대구서 개최...청년불자 1천여명 참석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성공 기원 3보1배 등 행사 다채

(사)대한불교청년회(회장 박법수)가 주최하는 제26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하 불청대회)가 6월 23~24일 대구지구(지구 회장 이만회) 주관으로 동화사와 한국(영남)불교대학에서 열렸다.

“나눔으로 하나 되는 열린 마음 열린 청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불청대회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1000여명의 청년 불자들이 참석했다. 중국 심천 관음선원 청년회준비위원단과, 재한 쯤마인 연대, 스리랑카·헝가리 등의 청년 불자대표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식전부터 생명나눔실본부의 홍보지를 나누며 생명나눔 정신을 강조한 청년불자들은 23일에는 한국불교대학에서 전 아제를, 24일에는 동화사 통일대불전 법

당에서 본 대회를 개최하고,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4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기원하는 3보1배 가두행진을 벌였다.

23일 오후 7시, 한국불교대학 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된 전야제는 만해사상과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청년불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불청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와 지구별 문화공연, 율동공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면서 열기가 고조됐다.

특히 상금 50만원의 두고 벌어진 율동경연대회는 청년불자들의 끼와 열정이 녹아나는 무대였다.

24일 오전 11시 동화사 통일약사여래

부처님 앞에서 열린 본대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권영세 대구시행정부시장, 이형구 강원도행정부지사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혜총 스님 법문, 불청대상 시상식, 청년발원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법수 회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나눔과 열림’이라는 화두로 87년 전 불교청년회를 창립하신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가고자 모였다”며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나눔에 인생하지 않고 그 나눔을 더 큰 나눔과 더 큰 희망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불청대회는 일 년 동안 얼마나 부처님 마음에 접근했는가를 열 불, 참선, 참회,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청년을 대표로 모인만큼 부처님의 마음을 가져가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불교청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불교청년대회 행사 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삼보일배 대행진 모습

허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울은 선사의 끊임없는 수행정진과 강한 신념, 개혁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이 시대에 맞게 재조명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청대상 시상식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로 26년간 활동하면서 금강사불청, 구미불청 경부지구 회장을 역임하고, 구미 불교청년회관설립에 공헌한 류준일 법우가 불청대상을 수상했고, 부산지구가 최우수지구, 해남불교청년회가 최우수지

회를 받았다.

전국의 청년불자들이 ‘나눔과 열림’을 주제로 한마음 한 뜻 된 제26차 불청대회는 ‘통일바라밀을 행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퇴전의 신심으로 나아가 갈 것’을 서원하는 청년발원선언문의 낭독을 끝으로 회향했다. 내년 전국불청대회는 광주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이날 대구지구에서 광주원각사청년회로 이양됐다.

대구=배지선 객원기자

성북장애인 복지관 11일 개관

서울 성북지역 장애인 복지의 새 장을 열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7월 11일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문을 연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이 지난 2005년 수탁 받은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2년여의 공사 끝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완공됐다. 장애아동 치료실과 교육실, 직업훈련실, 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재활 상담과 치료 등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1일 오후 3시 열리는 현판식에는 종범 스님과 서찬교 성북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928-0750

여수령 기자

남양주에 청소년보호시설 개관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이 6월 25일 개소한 남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일시정소년쉼터는 가정폭력과 학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다. 두 시설 모두 소장은 지호 스님이 맡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출청소년이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고, 일시정소년쉼터는 가정폭력 등으로 머물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길게는 한 달 가량 머물며 자활교육과 보호를 받는 곳이다. 여수령 기자

“순국 선열 극락왕생 기원”

내원정사, 6·25 추모법회

6월 25일, 조국의 아픈 역사야 담긴 이 날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린)는 소중한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친 전몰장병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기념법회 및 49일 지장기도 회향대법회를 회향했다. (사진)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회향하고 법회를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리산 서암정사 조실 원은 스님과 내원정사 주지 정린 스님,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유족과 육군 53사단 현역군인, 허남식 부산시장, 박극제 서구청장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원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은 49일 지장기도를 회향하며 6.25 사변으로 비참하게 희생당한 영령을 추모하는 날”이라며 “미움도 사랑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하나되어 부처님의 뜻에 바르게 귀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는 추모기념 법회가 6월 25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열렸다.

내원정사는 ‘순국선열 육해공군 전몰장병 순직경관 호국영령 및 선방부도 천도 49일 지장기도’를 27일 동안 열고 있다.

주지 정린 스님은 “출가 전 어린 시절 낙동강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을 목격하고 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게 됐다”며 “순직자 전몰장병의 위패를 모시고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경동대중사 25주기 추모 법회

경동사 경봉문도회(회주 원명)는 7월 11일 오전 10시 영축종림 통도사 극락암 극락호국선원(선원장 명정) 무량수전에서 경동대중사 제25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화회(이사장 원명)는 통도사 강원의 학인 스님과 영축종림 산중선원 스님 및 학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하성미 기자

“발달장애 아동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날마다 좋은날 캠프 개최

최근 초등학생 480만 명 중 26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높은 치료비로 고통 받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은 7월 7~8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 수련원에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꿈을 안고 내일로 우리들’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인터넷 카페(cafe.daum.net/ADHDParents)가 주관하는 것으로 상담교육과 공동체 놀이, 체험마당, 희망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애 어린이 65명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02)732-7272 여수령 기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미국 하원 외교위 통과

내주 하원 본회의 상정

일본군의 중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6월 26일 채택됐다. 결의안은 오는 7월 둘째 주 열리는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 된다.

일본계 3세인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발의한 중군위안부 결의안(HR212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중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인과 사과, 일본 총리의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미국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비록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간 중군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온 일본 정부의 태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

할 것 △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일본 정부가 중군위안부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거부할 것 △중군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는 미국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경기도 퇴촌 나눔의집(원장 원행)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큰 힘을 발휘했다. 할머니들은 지난 2월 15일 미 하원의회가 주최한 중군위안부 청문회에 참석해 일본의 위안부 관련 실상을 증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 상임대표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9월경 유럽 5개국 순회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10월에는 미국에서 세계대회를 여는 등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ews.com

불교 여성지도자 초청 특별 강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매달 1회 불교여성 지도자를 초청하는 ‘특별한 만남’을 개최한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연기자 강부자씨 초청 강연에 이어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7월 12일) △천양자 안국선원 신도회장(8월 20일) △백경남 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9월 17일) △김남선 구암중학교 교사(10월 15일) △김용숙 아줌마나라의기등 대표(11월 19일) △진민자 한국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12월 17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의는 오후 7시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

강릉 현덕사, 동·식물 천도제

강릉 현덕사(주지 현중)가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현덕사 경내에서 제6회 동·식물 천도제를 봉행한다.

전국 각지에서 교통사고와 실형, 무분별한 개발로 죽어간 동·식물들을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천도제와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공양하는 경토전치도 함께 열린다. (033)661-5878 여수령 기자

제4차 한국불교학 집결대회(2008) 준비를 위한 한국불교학회 여름 워크숍

도올 김용옥 선생과 불교와의 만남 ‘믿음(信)과 깨달음(Bodhi.證)’

- 일시 : 2007년 7월 7일(토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보우당 • 문의 : 02)2260-3140 / 010-7162-5498

1. 워크숍 취지

이번 한국불교학회 여름워크숍은 세계적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사회를 보고, 한국불교학회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 믿음(信)과 깨달음(證)에 대해서 답문을 펼쳐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 될 것이다.

한국불교학회는 이번 행사가 불교학이 한국 사상계의 주류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의 선승 수(首)사찰인 봉은사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2008년 5월에, 한국불교학회의 주최로 외국인 학자 50여명 내국인 학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개최될 세계적인 행사인 한국불교학결집대회의 위지를 미리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불교학회의 하계워크숍은, 불교의 교의를 21세기의 현대어로 쉽게 나타냄을 통해서, 불교가 우리의 삶에 깊은 감동을 주는 종교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워크숍 진행

행목 시간	주제 및 발표자 / 토론자
13:00~14:00	제 1부 : 개회식 사회 : 김경진 교수(전국대학)
개회	•삼귀의 •개회사 : 이명래 교수(한국불교학회이사장, 흥남대 명예교수) •축 사 : 명진 스님(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발표자 소개
14:00~16:50	제 2부 : 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전체 사회 및 토론	도올 김용옥 석좌교수 (세명대학교)
제 1주제	초기 : 부파 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발표 : 임승택 교수(경희대학교)
제 2주제	중관 : 유식 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발표 : 안성두 교수(금강대학교)
공연	공연 사회 : 운소희 교수(동국대학교) 해금 연주 : 성의신 선생(KBS국악연한단 해금수석연주자)
제 3주제	밀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발표 : 허일범 교수(전국대학)
제 4주제	화엄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발표 : 신규택 교수(연세대학교)
제 5주제	선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발표 : 이덕진 교수(성원대학교)
16:50~17:00	제 3부 : 총평 사회 : 김경진 교수(전국대학) 이명래 교수 (해사 한국불교학결집대회(2008) 대회장, 흥남대학교 명예교수) 폐회 : 사홍사원

전통사찰 대응보전 건축 견적공고

- ◆ 건평 : 78평
- ◆ 건축형식 : 외11포 내3포 5×3칸 칠량 7포 팔작지붕 겹처마 우물마루

위의 대응보전 건축공사에 견적서를 받고자 합니다. 동참하실 분은 견적서를 제출하시기전에 1차 왕립하시어,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문화재 기능공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합니다.

- 제출기간 : 2007년 7월 15일까지
- 연락처 : 종무소 052)243-8712 직 통 052)245-4366
전 송 052)243-1142 / H · P 011-578-2155

2007년 7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말사 백양사 주지 합장